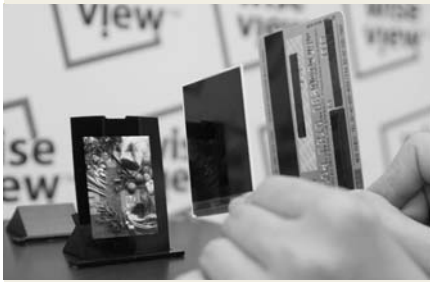


**삼성전자, 세계에서 가장 얇은 LCD모듈 개발**

삼성전자가 두께가 신용카드 정도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초박형 LCD 모듈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0.82mm 두께의 LCD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모듈은 지금까지 나온 가장 얇은 제품보다 0.07mm 더 얇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휴대폰 화면 보호를 위한 강화 플라스틱과 충격방지 지지대를 하나의 시트로 일체화시킨 '아이렌즈(i-Lens)' 기술도 개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면 휴대폰 완제품(세트) 두께를 1.4~2.4mm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렌즈는 햇빛반사도 크게 줄여 야외에서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시인성(靚認性)도 크게 향상된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윤진혁 삼성전자 LCD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개발로 휴대형 LCD 패널의 '초슬림화'와 '내충격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휴대형 디스플레이의 초슬림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이렌즈 기술을 적용한 화면 크기 21인치와 22인치 초박형 LCD 모듈을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qVGA(240×320) 해상도, 300니트(nit)의 휘도, 500 대 1의 명암비를 구현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반 휴대폰 화면을 보면 LCD 패널 위에 약 2~3mm의 틈을 두고 강화 플라스틱이 한 장 더 부착돼 있지만 충격방지 시트를 LCD 패널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그 틈을 없앨 수 있고 내충격성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관련 특허를 출원해 노키아·모토로라 등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와 공급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스템 에어컨 출시**

LG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출시하고,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지난 2년간 50억원을 투입해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 138mm의 초박형 시스템 에어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기존에 가장 얇은 시스템 에어컨은 180mm였으나, 이번에 두께를 40mm 이상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주상복합 뿐 아니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던 '일반 아파트'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천장 속 공간이 100mm이하로, 소비자나 건설사가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희망하더라도 현재 나와있는 두께의 제품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정부의 소방법 개정(신규 아파트 모든층에 스프링클러,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05년 1월 이후 허가된 11층 이상 아파트는 천장 속 높이가 170~180mm로 확대됐다.

LG전자는 이 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138mm 초박형 시스템 에어컨을 출시함으로써, 업체 중 유일하게 일반 아파트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면적을 줄여 인테리어상의 이점이 크고, 상하 방향 냉기 흐름으로 냉방이 더 효율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연 2만 세대 규모의 신규 분양 주상복합 시장은 물론, 연 30만 세대 규모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까지 시스템 에어컨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초박형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은 현대건설의 김포 신규분양 아파트('07 연말 입주 예정)에 이달부터 첫 설치되며, GS건설 반포3단지 재건축현장, 두산산업개발 포항아파트 단지 등에도 계약이 완료됐다.

**오토닉스, CO<sub>2</sub>레이저 마킹 시스템 출시**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40W, 100W의 고출력 CO<sub>2</sub>레이저 마킹 시스템인 'AutoMarker' ALC-N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ALC-N 시리즈는, 고출력 레이저 빔을 통해 마킹 뿐만 아니라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고무나 복합재 등 다양한 재료의 절단, 구멍 가공 및 접합 가공 등의 기능

이 강화되었다. 또한, 오차범위를 절반 이하로 줄여 5% 이내의 출력 안정성을 실현하고, 초당 800개까지 문자를 마킹하는 빠른 속도에서도 정확하고 세밀한 마킹이 가능해져 작업 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외에도, 10 $\mu$ m 단위의 마킹 위치 설정으로 움직임의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ALC-N 시리즈는, 극소 문자 마킹과 소형 제품의 마킹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헤드부의 사이즈가 30% 정도 축소되어 동급 초소형 사이즈를 실현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으며, 미려한 디자인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토닉스 레이저 마킹 시스템 AutoMarker는 4,000여종에 이르는 오토닉스의 센서, 제어기기를 적용함으로써 산업 자동화 환경을 위한 최적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으로는 Nd:YAG(야그) 방식 3종, CO<sub>2</sub> 방식 8종 등 총 11종이며, 펌프,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핸드폰 키패드 등 다양한 제품의 공정에 투입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 서비스망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실현하고 있다.

### LS전선, 국내 최초 10G 통합배선 시스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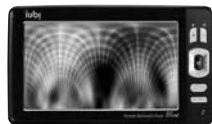
LS전선이 10기가(G) 통합 배선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해 신규 브랜드 '심플(Simple)'로 출시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10G 통합 배선시스템은 UTP 케이블로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10초만에 다운받는 초고속

전송속도를 구현했고 노이즈를 최소화한 설계구조가 특징이다.

LS전선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10G 랜케이블을 상용화한데 이어 패치판넬, 패치코드 등 10G 통합배선과 관련된 솔루션까지 개발해 이 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이랜텍, 대용량 PMP출시



현재의 PMP보다 2~3배 큰 용량을 지원하는 PMP가 나왔다. 이랜텍(대표 이세용 <http://www.iubi.co.kr>)은 최근

60GB급 '블루 아카데미 PMP·사진'를 출시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4.3인치 와이드 TFT-LCD를 채택했다. 하드디스크는 도시바의 1.8인치 제품이 탑재됐다. 두께는 24mm, 무게는 272g이다. 색상은 블루블랙다. 판매가는 39만9000원이다.

한편 이랜텍은 이달 말께 DMB 수신기능이 내장된 PMP(30G·60G)를 출시할 계획이다.

### 이트로닉스, 인켈 홈시어터용 스피커 시스템 출시



이트로닉스 인켈사업부는 색상과 소재를 차별화하고 대형 벽걸이 디지털TV와 어울리는 슬림형 플로어 스탠딩 5.1채널 스피커 시스템인 인켈 ST5220·ST720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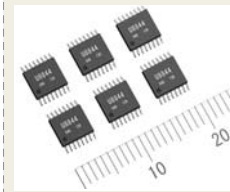
사건을 출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인켈ST5220은 피아노에서 사용하는 하이그로시 마감을 라운드 형태로 사용해 안정감 있고 현대적인 고급 오디오 이미지를 강조했다.

인켈ST720은 전면부는 블랙, 후면부는 실버톤의 고풍택 인테리어 몸체를 채용했으며 스피커 외장의 강도를 강화했다.

이 제품들은 메인 스피커의 저역을 보충하기 위해 자체 앰프를 내장한 액티브 서브우퍼가 함께 구성돼 처음을 시청 공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가격은 ST5220이 42만원대, ST720은 35만원대이다.

### 로옴, 음성발성용 디코더칩 출시



로옴전자코리아는 11월 14일 가전제품용 고품질 음성발성 디코더칩 'BU8844FV'

를 출시했다. 이 칩은 로옴전자의 기존 제품에 비해 소비전력을 6분의 1로 줄였으며, 음성발성에 필요한 기능을 원 칩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PC 상에서 간단하게 음성 안내 데이터를 작성·확인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개발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했다.

로옴전자코리아 측은 "최근 가전제품에서 오동작 방지와 고령자를 배려한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며 "음성을 통한 조작과 경고 안내기 등을 탑재한 세트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신제품의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옴전자는 이 칩의 샘플 가격을 개당 5000원으로 책정했으며, 향후 300만개까지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